

AIDS의 세계적 추세 및 관리현황

세계적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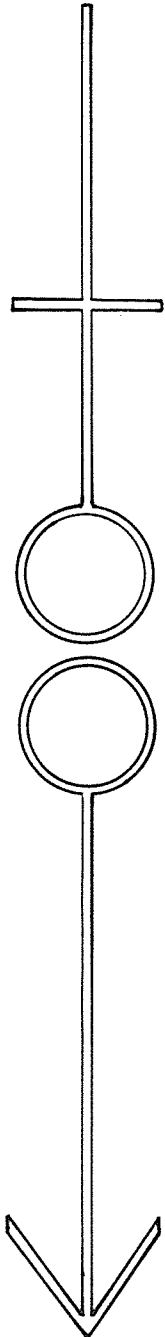
AIDS(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)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일부 지역의 특정집단에서만 발생하였으나, 현재는 모든 대륙에서 HIV(인간면역결핍증바이러스)감염자와 AIDS환자가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.

1992년초 WHO(세계보건기구)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HIV에 감염된 성인 및 소아는 1,000만~1,20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. 그들 중 약 200만명은 이미 HIV감염으로부터 평균 10년 후에 발생하는 마지막 단계의 AIDS환자로 진행된 상태이다. WHO가 추정하는 서기 2000년의 남녀노소를 포함하는 총 HIV 감염자수는 3,000만~4,000만명, AIDS환자수는 1,200만~1,8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.

전 세계적으로 HIV감염의 가장 흔한 전파경로는 이성간의 성교제이며, 이미 개발도상국에서도 남성 감염자에 의한 많은 여성보균자가 발생하였고, 선진국에서는 남·녀가



김 상 인



거의 같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다. 감염된 산모들 때문에 이들로부터 태어난 신생아의 감염, 주산기감염 또한 증가하고 있다. 동성연애에 의한 감염은 북미, 호주, 북유럽에서는 아직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, 이지역에서의 이성간의 전파는 훨씬 빠른 속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.

감염된 혈액에 의한 전파는 선진국에서는 사실상 그 위험성이 제거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, 개발도상국에서도 수혈전파성 감염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는 있지만, 국민에 대한 계몽부족과 헌혈제도상의 미비점, 값비싼 검사비용 등의 요인 때문에 아직도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들이 많다. 의료기관 외에서 한 주사기구를 반복사용하므로써 전파되는 혈인성 AIDS전파는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모두 다 마약중독자들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.

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앞으로 10년간 예상되는 HIV감염자와 AIDS환자의 약 90%는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며 우리나라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.

사하라사막 남쪽의 아프리카에서는 이미 600만명의 성인이 감염되어 있어서, 어떤 도시의 산모에

대한 산전진찰에서 많게는 1/3의 여성이 HIV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이렇게 높은 혈청반응 양성율은 도시 밖에서도 관찰되고 있다.

결과적으로 WHO에서는 현재 2000년까지 500만~1,000만명의 HIV감염 소아가 태어날 것으로 추정한다. 1990년 중반부터는 AIDS로 인한 소아사망율 증가로 인하여 지난 20년간에 걸쳐 이룩한 낮은 소아사망율에 큰 변동이 올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아프리카국가에서와 같이 HIV감염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AIDS가 없었을 때에 비해서 이미 출생시의 생존율이 5~10% 떨어지고 있고 2000년에는 20%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.

세계 인구의 1/2이상이 살고 있는 아시아지역에서는 1987년과 1991년 사이에 사하라사막 남쪽 지역에서 1980년대초에 보였던 것과 같은 비율로 HIV양성율이 증가하고 있다.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서 후반에 이르면 아프리카보다 더 많은 감염자들이 아시아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. 1992년 초에 라틴아메리카, 카리브해 지역에서도 100만명 이상의 HIV감염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.

AIDS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, 사하라

WHO가 추정하는 서기 2천년의 총 HIV 감염자수는 3천~4천만명, AIDS 환자수는 1,200만~1,8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.